

1 문순태 칼럼

세배하고 싶은 어른이 없다



소설가

설을 맞아 서울에서 아들딸들과 손자들이 내려온다고 하여 세뱃돈부터 준비했다.

지금까지는 손자들에게만 세뱃돈을 주었는데 이번 설에는 부모가 된 아들딸들에게도 줄 생각이야. 마침 밀린 원고료가 들어와 간단에 선심을 쓰고 싶었다.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자라는 동안 제대로 세뱃돈을 주어본 적이 없어, 늘 미안한 생각으로 마음 한구석이 찢찢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시절에는 먹고 살기가 곤근하여 세뱃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설날 아침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자리에 누워, 아픈 사람한테 세배하면 죽으니까 세배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시곤 했다. 나는 어머니께서 손자들에게 세뱃돈을 줄 수가 없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못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명치끝이 아려온다.

그래도 내 유년시절 설 풍경은 아름다운 무채색의 추억으로 살아있다. 설빔을 차려입고 또래들과 함께 세배하러 다녔다. 집집마다 떡이며 꿀감, 대추, 엿, 한과 등 먹을 것을 내놓았으며, 배가 부르면 조그 주머니가 미어지도록 그것들을 담았다.

“알록달록 색동저고리 아름답게 꾸미고/ 세배 가는 아이들 기뻐 어쩔줄 모르네/ 돌아올 때 소매 가득 무엇을 얻었는지/ 꼬챙이에 꿰 꽃과 색색의 강당이네” 1843년 유만공(柳晩恭)이 지은 ‘세시풍요’에 나오는 대목과 비슷했다.

옛날에는 설날 그림날에 하는 묵은 세배와 설날에 하는 신세배가 있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은 묵은 세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순조 때 홍석모(洪錫謨)가 쓴 ‘동국세시’를 보면 “묵은 세배를 하느라고 이날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초롱불을 든 세배꾼들이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다.”고 기록했다.

세배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다. 세배는 친

애와 공경을 위한 전통적인 소통방식이다. 세배를 통해 어른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마음과 정신적 유대감을 굳히는 아름다운 풍속이다. 세배의 요체는 덕담에 있다. 덕담 한마디로 인생의 좌표를 삼았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스승님께 세배를 올리고 덕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았다.

6·25전쟁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마을이 소각되고 소개를 당해, 고향을 떠난 후부터 내게는 세배할 대상의 어른마저 없었다.

내가 다시 세배를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고(故) 이성부 시인과 함께 설날 김현승 선생님을 찾아뵈던 때였다.

우리는 설날 양림동 김현승 선생님댁에 세배를 가서 떡 대신, 선생님이 손수 타주신 커피를 늦대접으로 마셨다.

대학에 다닐 때는 그림 그리는 친구들을 따라 지산동 오지호 선생님댁에 세배를 가서 동예 정과를 처음 맛보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광주의 인권번호 사 홍남순 선생님과 송광사 불일암 법정 스님께 세배를 다녀고, 작가가 된 후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 뒤에서 손소의 선생님들과 사시던 김동리 선생

님댁에 가서 송순주를 얻어 마시기도 했다. 그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니, 설이 되어도 세배하러 갈 어른이 없다. 세배하고 싶은 어른이 없으니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사는 것만 같이 허전하고 쓸쓸하다.

동시대를 살면서 존경하는 어른께 세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명차 몇 권 읽은 것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값진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들 한다. 진정한 어른은 누구인가. ‘어른공부’라는 책

을 쓴 양순자 씨는 “어른이라면 인생의 긴 터널 앞에서 서성이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른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물론 정치·경제·사회 문화계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멘토는 될 수 있었지만 시대의 어른은 아니다.

만델라 같은 마디바 반역은 아닐지라도, 평생 개인의 명리(名利)에 휘둘리지 않고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한 사람, 시대정신을 꿰뚫어보고 역사의 바른길을 걷는 사람, 소외와 가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시대의 어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어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까. 내 평생 김수환 추기경,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같은 어른께 세배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부끄럽다. 이분들이 살아 있다면 당장 세배하러 가고 싶다.

법원 “상고심까지 광주시 명령 효력정지”

삼성그룹 ‘총장 추천제’ 전면 백지화

맥쿼리 자본금 200억 확충 조건 市, 2순환 매입 전략수정 불가피

법원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광주시 감독명령 처분집행 효력정지 신청을 대법원 상고심 판결 때까지 200억원의 자기자본금 확충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24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감독명령 취소청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감독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억원으로 일부 자본구조를 보완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4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감독명령을 내리면서 자본구조 원상회복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맥쿼리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

자(주)는 이 감독명령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기일을 연장해 왔으나 서류 및 소송 준비 등으로 60여 일을 소모하면서 ‘공자’에 몰렸다. 시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시작되기 전 90일이 지날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매입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광주시 역시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익귀속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현기자 chadol@

올해 공채 작년 방식대로... 대학·취업준비생에 사과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 도입하려던 대학총장 추천제(광주일보 27일자 1면·28일자 2면)를 포함한 채용제도 개선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작년 방식대로 진행한다.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업 사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추천제, 서류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

하기로 했다”면서 “확발·지역·성별을 불문하고 전문성과 인재를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열린채용 정신을 유지하면서 채용제도 개선안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총장추천제만이 아니라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를 모두 유보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 채용은 작년 하반기에 했던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

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학총장 추천제로 인해 각 대학과 취업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줬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삼성은 다만,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내용 개편은 논란이 된 채용제도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이 지난해 전국 200여개 대학별로 통보한 추천 인원이 외부로 알려진 뒤 대학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장 추천은 삼성의 ‘대학 쏠세우기’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지역·여대 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연합뉴스

AI 전국 확산 현실화되나

영암 이어 평택까지 의심신고

영암의 한 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 평택 닭 사육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AI 전국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AI 확진을 받은 해남 오리농장의 주인이 운영하는 영암 덕진동 종오리 농장에서 4km 떨어진 다른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의 한 병아리 육계농장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수도권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닭 농가 중에는 충남 부여 종계장(25일 확진)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다음달 17일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3월 말 창당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새정치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당원 확산 활동

‘새정치신당’ 내달 17일 창당 발기인대회

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당 발기인 대회는 중앙당 창준위 결성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를 거쳐야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이뤄진다.

새정추는 발기인 대회를 위해 내달 10일 전후까지 중앙당 창준위 구성 요건인 200명 이상의 발기인 구성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정부, 생계형 사범 5925명 특별사면

운전면허제재 290만명 감면... 정치·기업인은 제외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

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

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면허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천663명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7061명의 취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 등은 조치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총-52297호

노안시려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컵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